

'98서울 국제 에어쇼 1년 앞으로

'98서울 국제 에어쇼가 내년 10월 26일(월)부터 11월 1일(일)까지 7일간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소재)에서 개최된다.

공군이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주관하는 '98서울 국제 에어쇼는 국무총리를 명예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과 통상부장관을 공동대회장으로 하는 대회본부를 설치하게 되며 공군 참모총장과 우리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98서울 국제 에어쇼는 행사별로 각기 다른 일정을 갖는다. 행사는 10월26일(월)부터 7일간 열리게 되며 이중 4일간(26~29일)은 Business day로 참가한 업체들이 비즈니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에 관련된 업체와 관계자들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3일간은 Public day로 운영하여 일반인들이 관람을 위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총25개국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98서울 국제 에어쇼는 관람객도 약 5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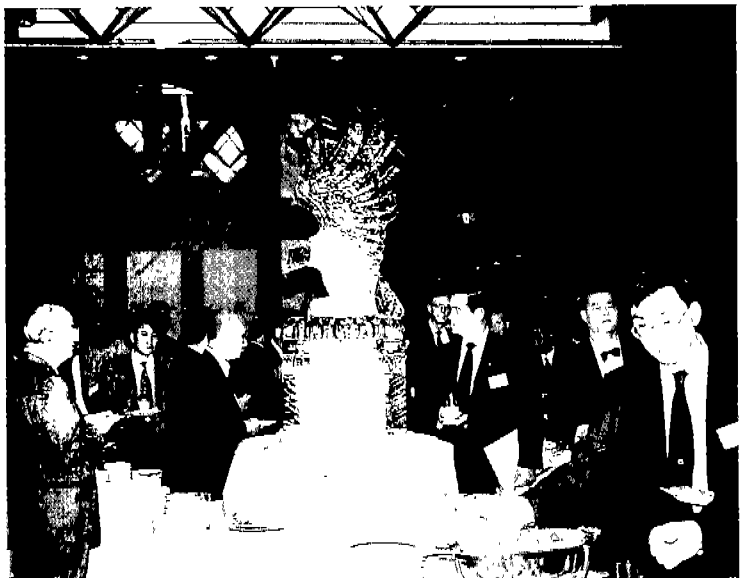
21세기 선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진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행사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에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방산수출 확대 여건 조성과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기술 협력 증진으로 관련 산업 기술의 국산화 도모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공우주 산업제품전시, 국내외 업체의 항공

기 성능 시범비행, 곡예비행, 심포지엄과 국내외 항공우주관련 석학초청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갖는다.

앞으로 행사계획, 행사준비, 홍보유치, 행사점검 등 4단계로 나누어 준비를 하는 '98서울 국제 에어쇼는 행사전날까지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공동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지난 30일 '98서울 국제 에어쇼 설명회가 조선히otel에서 각 국 주재 대사관 관계자,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관련 해외업체 한국 지사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외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96서울 에어쇼 경과 및 '98서울 국제 에어쇼 사업을 설명했던 이번 자리는 비디오 상영, 브리핑과 질문 답변 등 사업설명회와 리셉션을 가졌다. 이번에 참석했던 외국 관계자들은 처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96서울 에어쇼를 성공리에 마침에 놀라움을 표하고 '98서울 국제 에어쇼에 관심을 표했다.



9월 30일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 관계자 및 해외업체 한국지사장들을 대상으로 '98 서울 국제 에어쇼 설명회가 있었다.

AN-2기 생산50주년기념 세계 일주중 국내 기항

폴란드의 경비행기 제조회사인 PZL Mielec사의 AN-2 경비행기가 생산 5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일주 비행중 지난 8월 28일 공군 00기지에 도착했다. 폴란드 조종사 3명이 탑승하여 7월 22일 폴란드를 출발한 동 비행기는 8월 28일 한국에 도착하였으며 한국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일본을 향해 출발하였다.

AN-2기는 1947년 구소련 Antonov사에 의해 농업용으로 첫 비행을 한 이래 1948년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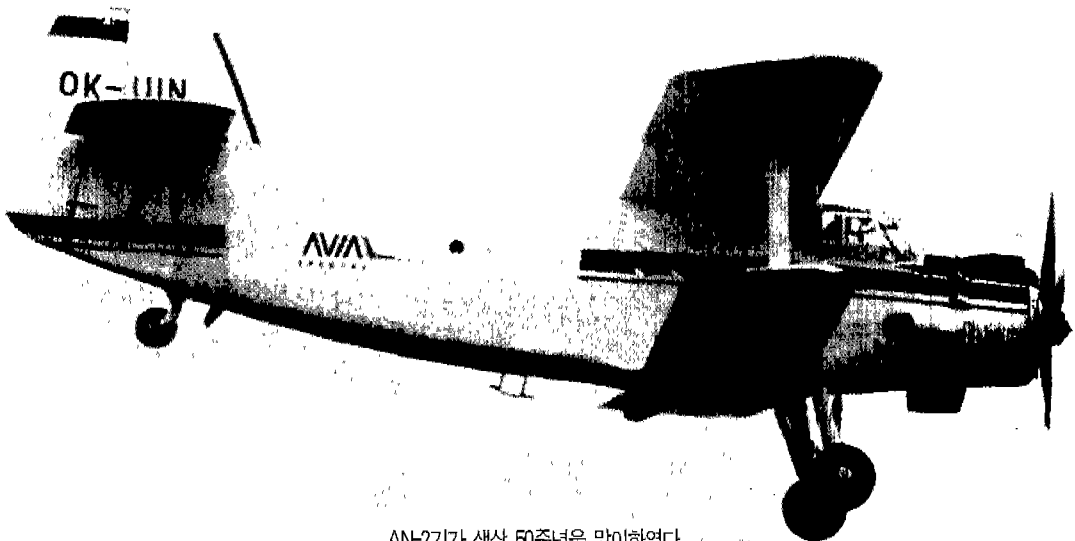
1958년에는 폴란드의 PZL Mielec사가 12인승 승객용을 면허 생산하였다. 구 소련 모델을 개량된 프로펠러와 동체를 사용하여 소음을 줄이는 등 면허 생산을 시작한 이래 약 1만 2천대 이상이 전세계에서 생산 운영되며 특히 동구권에서는 농업 및 수송 등의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단발엔진 터보프롭기인 AN-2기중 승객용인 AN-2T는 12명의 승객을 실을 수 있는 경량기로 최대속도는 258km/h이다. 농업용인 AN-2R은 주로 동구권에서 널리 사용되며 1991년까지 총 7,782대를 생산해 냈으며, AN-2T는 수송용으로 12명의 승객과 동시에 1,500kg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경비행기 중에서는 최고의 수송능력을 자랑한다.

이번에 한국에 도착한 AN-2기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길이 : 42.9ft △넓이 : 59.8ft △높이 : 13.1ft △최대이륙중량 : 12,125kg △ 최대순항속도 : 259km △항속거리 : 950km이다.

폴란드-러시아-몽골-한국-일본-미국-대서양을 횡단하여 다시 폴란드를 도착하는 세계일주를 시도하는 동 비행기는 생산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한번 성능의 우수성을 시험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폴란드와의 항공기 산업 협력 차원에서 폴란드측이 요청한 유류 및 공항이용료, 숙식 등을 우리협회와 대우중공업에서 지원하였다.



AN-2기가 생산 50주년을 맞이하였다.

대우중공업, 미 노드롭사로부터 보잉 747기 동체구조물 1억달러 상당 수주

대우중공업이 미 노드롭 그루만사로부터 1억달러 상당의 보잉 747 항공기 동체구조물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중공업은 이날 오후 대우빌딩 대회의실에서 추호석 사장과 미 노드롭 그루만사의 Jim Hoover 수석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잉 747-400기종의 동체구조물(Fuselage Frame)을 제작, 공급키로하는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대우중공업은 이번 동체구조물 수주로 오는 2006년까지 안정적인 항공기 구조물 제작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특히 최고의 가공기술과 조립기술이 요구되는 정밀조립방식(Precision Assembly Process)을 적용키로 하므로써 국내 항공기 구조물 제작기술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항공기 정밀조립방식은 컴퓨터 제어를 통해 자동으로 조립하므로써 기체 조립

시 오차한도를 기존방식의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고, 제작기술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식은 현재 보잉사가 제작하고 있는 항공기 중 보잉777 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지난 10년간 미 보잉사에 보잉 747-400 기종의 날개 구조물 400대 분을 노드롭 그루만사에 동체구조물 500대분을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대우중공업 미 노드롭 그루만사와 동체구조물 제작 공급 계약

항공기 안전착륙 시스템 개발

기존의 계기착륙시스템과는 달리 어떠한 지형 조건의 공항에서도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건국대 이영재 교수팀(항공우주공학과)은 항공기 착륙에 위치확인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해 항공기의 안전착륙을 유도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GPS위

성과 지상에서 이를 보조하는 위성 2개 이상을 지상에 설치,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다.

상공에 떠있는 GPS위성이 항공기의 위치를 잡아주면 지상의 다른 두 보조 위성은 항공기의 수직수평 위치를 정확히 측정, 항공기의 근접정밀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GPS시스템은 유지보수에 수 십억원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존의 계기착륙시스템과는 달리 3억원 정도면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해 지방공항과 안전사고 예방에 적절히 기여 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터빈 블레이드 국산화 개발 성공

삼성항공이 국내 정밀 주조 선두업체인 한국로스트왁스공업(주)와 공동으로 진공 정밀 주조를 이용한 항공기 및 고속 합정용 터빈블레이드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터빈블레이드 제조 기술은 진공을 이용하는 매우 어려운 공법으로 치수 정밀도가 매우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로서 이번 개발에 성공한 터빈블레이드는 해외 선진 업체에서 부품 제조 기술의 완전한 독점과 자국의 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의 기술 이전을 회피하는 전략 부품으로 전략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으며 이번 국산화 개발로 국내 기술 자립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이번 국산화 개발의 의미는 20억의 수입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GE사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시 적용하

는 규정인 기술개발 능력, 인력, 생산공정, 제조설비, 품질보증체계, 검사능력 등을 평가하여 생산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받은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항공기 엔진부품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생산이 일부 있었으나 양산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갖추어 제조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는 매우 높다.

터빈블레이드는 항공기 엔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발전용 엔진부품인 Bucket 및 Nozzle Vane류 및 방산용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 방산 부품의 국산화에 일익을 담당케 되었다. 또한 중장기 항공우주분야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형항공기, 고동훈련기, 헬기 등에 소요되는 부품 국산화를 향상과 항공기 부품생산기술의 정착 및 국내 정밀주조분야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美 록히드, 보잉과 파트너십 체결 보잉사에 정비사업 공동추진

미국의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가 보잉사의 상용기 정비부문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이다.

노드롭 그라만(Northrop Gramman)사를 합병한 록히드 마틴사는 보잉사의 공급자로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노드롭 그라만사의 기술로 보잉사 기종의 후속지원 및 정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동사는 보잉사가 겪고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의 제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사는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중국,

헝가리 등에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노드롭 그라만사의 20억달러 규모의 상용기 사업을 바탕으로 상용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수부문에서는 동사가 제작한 미 공군의 C-130C, 해군의 P-3 을 포함하여 보잉사가 제작하고 노드롭그라만사가 부품을 납품한 미 공군 KC-135와 KC-10등의 정비사업에도 곧 진출할 예정이다.

동사는 C-5기종의 대단위정비사업에서 탈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보잉사와의 파트너십은 록히드 마틴사의 상용기 정비사업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함께 보잉사의 인력난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